

해밀

2010년 2월호

행복

유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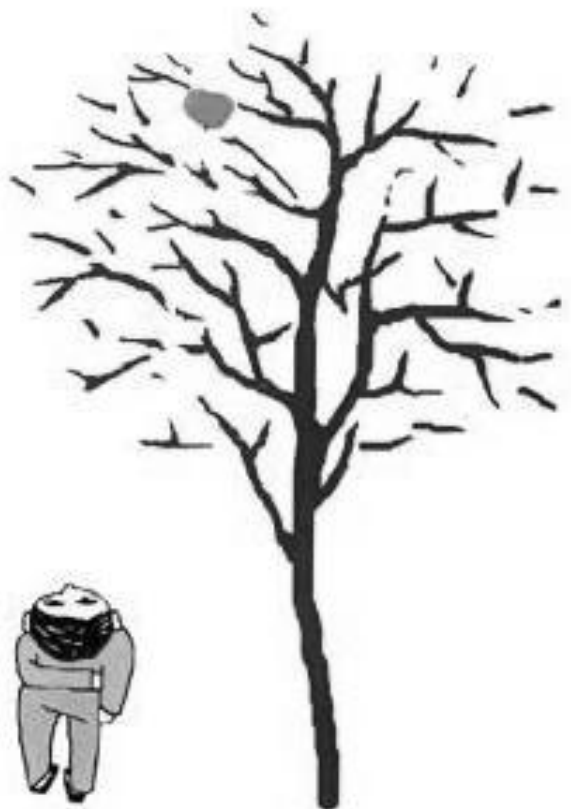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머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술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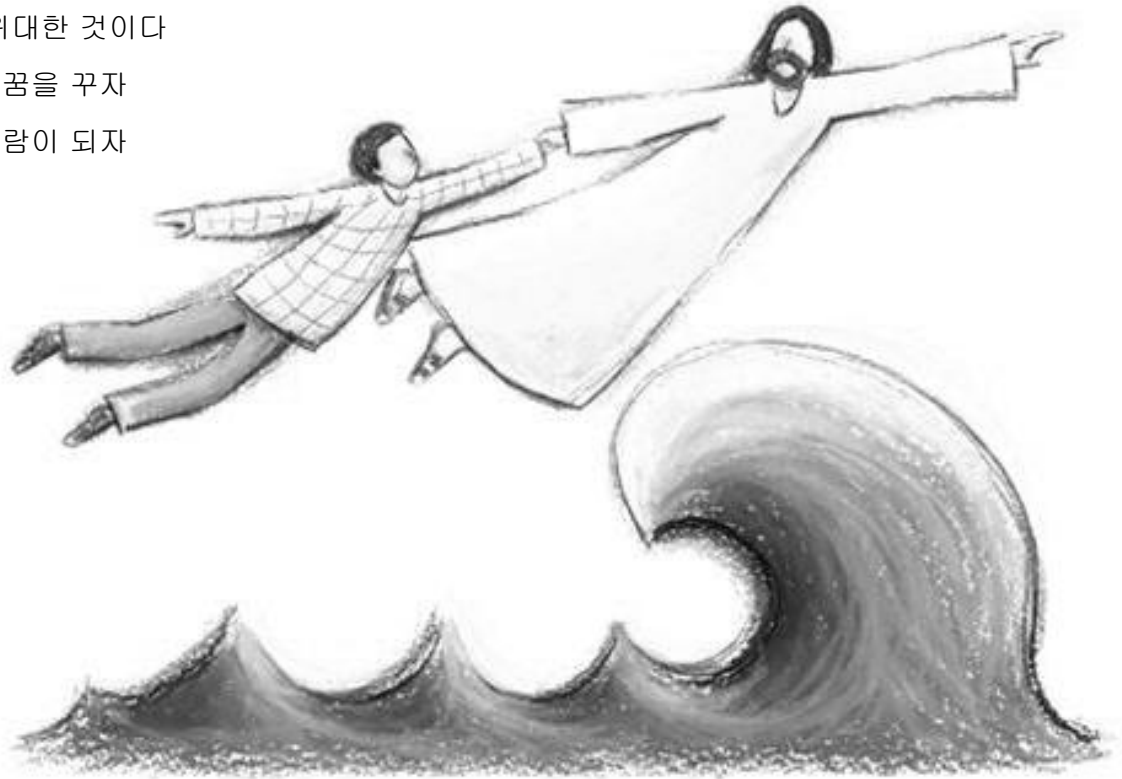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꿈꾸는 사람

위대한 자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자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자



차례

참 맛있게 생기셨네요 3~5

가깝고도 먼 나라(4) 202~21

믿음이란? 6~8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 (2) 22~25

나는 네게 모든 걸 주고 싶다 9

메시아의 '기적' 26~28

빈말을 비어있다 10~11

눈 속에 비친 자비심 29

믿음, 소망, 사랑 12~13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30~31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의원 14~17

한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 32~33

선생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18~19

노년을 행복하게 삼시다 (1) 34~36

해밀은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을 말합니다. 몰아치는 폭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거센 폭풍 속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때도, 귀청이 찢어질듯한 천둥 번개 속에서 두려워 떨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듯이 지나가고, 맑게 개인 하늘을 볼 날이 있겠지요.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해밀 편집부

전화: 071 194 2820

메일: latenews@daum.net

참 맛있게 생기셨네요

푸르름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가 4:10~12)

청춘의 때

“너희들에게만 청춘이 있는 줄 아느냐, 내게도 청춘이 있다. 내 청춘은 너희들 청춘보다 중후하고 여유롭다. 너희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으니 지금은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시절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하시던 한 교수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 교수님은 40대 후반으로 여유와 위트가 풍부하시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학위를 하신 실력 있는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멋쟁이였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말씀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었다. 당시 20대의 대학생에게는 ‘40대의 중년’과 ‘청춘’의 이미지를 겹쳐 떠올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인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젊었던 것 같다.

이제 어느덧 그 교수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아니 이해가 된다고 보다 아주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또 그때의 청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살아온 시간의 크기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찾기가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이 남들 눈에 자못 애처롭게 비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 있겠는가. 젊게 살겠다는데... 사실 바뀐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 젊게 산다는 것이 철없는 객기만은 아니다. 점점 길어져 가는 수명 덕에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날이 적지 않을 터에 그 많은 날들을 늙은 이로 살기보다는 젊은 생각으로, 또 젊은 생활로 당당히 젊게,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이든 젊은 청춘의 삶을 누구든지 두말없이 택하지 않겠는가

젊음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나이가 들어가며 세월이 닦아준 여유로움도 더해져 중후함까지 갖추면 한결 멋진 청춘의 모습을 만들어 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이 듦을 인정하고 앞서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뒷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과 마음을 열고 젊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인정하는 자세를 통해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진정으로 청춘의 때를 다시 한번 더 맞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이 듦의 증거

하지만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여러 변화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생각이 자꾸 보수적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때로는 변화가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예전 젊은 시절에는 어른들의 생각이 고루하다고 느껴지던 적이 많이 있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세대차이라 치부하며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답답해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 반대편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다.

그런 것들 중에 그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인 것들이라거나,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면, 싫어도 그냥 이해하는 척하며 ‘쿨’한 어른의 모습을 연기하며 괴리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노련함도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터득해놓았지만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주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거나 만날 경우가 거의 없어 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TV나 신문기사 등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저 세대차이라고 단정짓고 말아도 그만인 것을 앞선 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두 번째 나이든 증거인 것 같다.

공중파 방송

예컨대 이런 일들이다. 얼마 전 TV에서 지난 연말에 진행됐던 시상식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상을 받은 연예인들의 심리와 반응 등을 취재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간 중간에 자료 화면으로 지난해 펼쳤던 그들의 활동들을 곁들여서 보여 주고 있었다. 그 중 ‘소녀시대’와 ‘카라의 화려한 공연을 보면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시대’는 늘씬한 다리를 강조한 짧은 의상을 입고 아홉 명의 이제 스물을 갓 넘겼을 소녀 티를 막 벗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돌아가며 노래하고 춤추는 발랄함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어진 ‘카라’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비슷한 연령대의 아가씨들이 역시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형식은 같았지만 ‘소녀시대’보다 훨씬 진한 맛이 있었다. ‘소녀시대’가 수채화라면 ‘카라’는 아주 강렬한 색채의 유채화 같았다. 하여간에 요즘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들다운 볼 만한 무대였다. 정확히 말하면 볼 것이 참 많은 무대였다. 젊은 ‘소녀시대’ 아가씨들의 늘씬한 각선미를 실컷 즐길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들의 쇼를 제대로 보는 참된 시청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카메라도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더 나가서 ‘카라’는 그들의 엉덩이를 정말 탄력 있게 흔들며 춤추었고 또 카메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따라 다니고 있었다. 잠시 내가 밤무대의 야한 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모두들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그냥 같이 즐기면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질까? 요즘 가수들은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고객인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꽤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하지만 열광하는 쪽에 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저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세대를 가르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아닐까.

음악으로 즐거움을 줘야 할 가수들이 목소리보다 몸을 앞세우고 섹스 어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환호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은 음악적 재능으로 아름다운 음악 통해 가수가 성공을 꿈꾸기 어려운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음악 외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저 시선만 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그 천박함이 ‘젯소부인 바람났네’의 가슴크기를 내놓고 자랑하던 연기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던 흘러간 한 여배우의 그것과 어떤 다름이 있는지 차이를 찾아 보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단지 나이든 고루한 생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꿀벅지

더하여서 보여지는 것의 무게가 점점 커져 가는 것 같다. 세태가 점점 더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듯한 기세다. 압구정 전철역 반경 1Km에 300여 개의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다는 기사가 이런 씁쓸한 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얼짱’, ‘몸짱’ 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더니 이제는 몸을 부위별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 S라인, 식스팩, 초콜릿 복근, 황금 골반이라더니 이제는 꿀벅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꿀벅지라는 말은 그 뜻이 ‘꿀을 바른 듯한 매끄러운 허벅지’란 뜻이라고 한다. 억지스럽게 뜻을 가져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꿀벅지란 단어가 갖는 천박한 뉘앙스를 가려보겠다는 의도가 흰히 들여다보인다.

이전에도 친숙한 먹거리들을 붙여 외모를 표현했다. ‘계란 같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 등등. 하지만 그것은 그 색이나 모양을 빗댄 것이지 결코 맛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란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계란 같은 가름한 미인형 얼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 계란 맛이 나는 비릿한 얼굴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꿀은 모양이 아니라 맛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꿀 참외, 꿀 배, 꿀 사과처럼 주로 과일에 붙여서 아주 달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함께 쓰여진다. 그래서 그런지 꿀벅지라는 말은 허벅지라는 부위와 합쳐지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연상을 하게 된다. 한 여고생은 꿀벅지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여성부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은 세대를 넘어 공통된 것인가 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넷 신문 이데일리의 인터뷰 기사내용이다.

「실제 꿀벅지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애프터 스쿨’의 유이는 모 방송 제작발표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 다른 여성들보다 허벅지에 탄력이 있다”라며 “꿀벅지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아 오히려 기뻐다”고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그녀는 “꿀벅지 라는 단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알리는 계기가 돼 기분 좋다”고도 덧붙였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다른 연예인들이 유이의 꿀벅지 신드롬을 부러워하며 너도나도 꿀벅지

행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꿀벌지라는 성적 뉘앙스가 흘러 넘치는 비속어에 가까운 단어가 왜 사용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보여지는 것만 중시하는 외모중시 풍조와 성공 할 수 있다면 영혼도 팔겠다는 경박한 성공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인기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흔들어대고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성적 수치심도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가짐들을 간파한 몇몇 관음적 취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페티시즘적인 변태성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적 비속어를 대중들이 너도나도 없이 따라 사용하고 언론 방송까지 덩달아 합세하면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화 된 것이다. 거기다 당사자까지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우려되는 현상들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은 불을 보는듯하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정하고 바깥의 아름다움만이 중시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는 이런 세대는 반드시 고쳐져야만 한다. 인격이 부정되고 푸줏간의 고기처럼 사람이 부위별로 평가되고 이용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아름답다’, ‘예쁘다’는 말 대신 ‘참 맛있게 생겼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참으로 우려되는 말의 왜곡과 인간 가치의 상실이 아닐 수 없다.

솔로몬의 해안

지혜로움의 상징인 솔로몬 왕에게는 왕후가 육십 명에 비빈들이 팔십 명 있었고 시녀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들은 모두 매우 아름다웠지만 정녕 솔로몬 왕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여인은 그들 중에 없었다. 정작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은 포도원지기였던 ‘술남미’라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신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얼굴도 검고 별로 예쁘지도 않았다. 그런 그녀가 위대한 솔로몬 왕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 왕은 술남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허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아가 4:10)

그녀의 매력은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 방울’ 즉 긍정적인 언어였고, ‘허 밑에 있는 꿀과 젖’ 즉 꿀과 젖 같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향기’ 같은 그녀의 품성이었다.

솔로몬 왕의 술남미에 대한 이 고백은 정말 감동적이

다. 솔로몬 왕은 외모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지혜로 깨달았고 그의 많은 여인들을 통해 수없이 경험하고 있었기에 술남미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술남미의 美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맑고 높은 정신에서 배어나오는 고상하고 향긋한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화려하게 꾸며진 겉모습 아니라 담백하고 고상한 내면을 중시하고 가꾸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존중되어질 때 세상도 점점 정리되고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꿀 방울이 떨어지게 만들어야겠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품격에 좌우된다. 언어에는 인격이 나타난다. 언어는 그저 단순히 표현과 전달의 수단이 아니다. 폴란드 문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J. 레이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고 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도 달라진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자. 음란하지는 않은지, 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헐뜯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어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긍정적인 표현은 듣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언어의 사용 습관은 인격이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의 허 밑에 꿀과 젖이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높이고 풍성하게 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특히 말초적이고 퇴폐한 세대에 초연하고 항상 맑고 깨끗한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로 우리에게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겠다. 옳음과 옳지 않음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익이 될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을 단호히 배격할 깨끗한 기상과 거기에 더하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량과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따뜻함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믿음이란?

성도교회 원로목사 예종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20)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선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잘못된 진리 위에 선 믿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점검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농부입니다. 땅이 없는 소작농 입니다. 이 집사님이 조상 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 있는데 집 뒤에 있는 돌산 입니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집 뒤에 있는 저 산이 돌산이 아니고 평지였다면 3천 평은 되겠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식구가 큰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든 어느 날 설교 중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확도 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겨자 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가라고 하면 산이 옮겨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집사 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십일조 헌금 한 번도 안 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잘 압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야 없겠습니까? 믿습니다. 이 산이 옮겨서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틀림없이 옮겨간 줄 알았는데 눈을 떠 보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상하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인가?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지요. 그런데도 바위 하나도 안 옮겨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석합니다. 참 잘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산이 직접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25-33)

믿음이 좋은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 정말 주책이지 믿고 물위를 걸어갔으면 끝까지 갈 것이지 파도를 보고는 의심이 들어 물에 빠지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목사님은 한강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위에 걸어가다가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다가 물에 빠

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물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믿고 한강에 뛰어 내려서 물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물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목사님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강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물 위로 걸어갔을 까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풍당 빠졌을까요? 이 목사님은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을까요? 이 목사님은 추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왜 물에 빠졌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들을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홍해에서 우리를 매장하려 한다고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

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라!” (출 14:16)모세가 지팡이를 가진 손을 바다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 날 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번밖에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관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온다고 경황이 없어 미처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일 아침에는 홍해 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 놓고 어제 구경 못한 홍해의 갈라지는 장면을 느긋한 마음으로 감상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해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어제 홍해 갈랐던 것같이 오늘 아침에 홍해를 다시 한번 가를 테니, 이제는 느긋한 마음으로 홍해 갈라지는 것을 구경 좀 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어제같이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로 내 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경리의 보고

로버트 H.솔러 목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 7:1-2)**

나는 어느 날 구급차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운전자의 모습에 감동받아 말을 건 적이 있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11년 전에 파산하여 무일푼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저는 금주식당을 경영하여 성공해 보겠다는 꿈은 버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더군요. 나는 올바른 자세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읽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저자는 문제가 생겨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그

래서 나는 어느 큰 목재상에 가서 내 꿈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는 내 꿈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오늘날 나는 금주식당을 6개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은 1백만 달러가 넘지요.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전보다 연보를 두 배로 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아내와 의논하여 연보를 두 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경리가 과거보다 두 배로 돈을 벌었다고 지난주에 보고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당신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요?” “안 갈라집니다.” “왜요? 어제는 갈 졌는데?” 물위로 걸어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 형님 참 주책이다. 걸어가려면 끝까지 갈 것이지 어부가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 물에 빠지다니?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고 요한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빠졌을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믿음대로 되고, 어떤 때는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에 부흥회 다니며 물어 봤는데 모두 같은 대답입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믿어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진리)을 찾아서 밝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서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신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인간의 신념도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신념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예를 든 것을 정리 해보십시오.

돌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한 집사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산이 옮겨 갈 리가 없

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돌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실 때만 산이 옮겨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위에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실 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도 의심이 생기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받아서 믿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옆에 있다가 베드로 형님도 참 딱하기도 하지 끝까지 걸어가지 왜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는가? 나는 베드로 형님같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물에 뛰어 들어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위로 걸어오라 했지 요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비유로 창작한 목사이지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에 뛰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물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만한 믿음을 주시면서 명령하였기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하여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 다. 모세에게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6-17)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하)

<‘저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중에서>

나는 네게 모든 걸 주고 싶다

작은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 일이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조그마한 수진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녀석도 이 더위에 고생하겠구나 싶어 손에 100원을 쥐어주며 말했다.

“수진아, 이걸로 오늘 짜짜바 사먹어라.”

냉장고가 없던 시절, 시원한 짜짜바는 아이들에게 최고 간식이었다. 더군다나 100원이면 짜짜바 두 개를 살 수 있었으니 수진이 마음이 얼마나 신났겠는가?

그런데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수진이는 굳히 잠들어 있고, 다 녹은 짜짜바 한 개가 그 옆에 축 처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아니, 이걸 왜 먹지 않고 놔뒀어?”

“그거요? 글썄 수진이가 기어코 안 먹더라고요.”

모처럼 받은 용돈으로 짜짜바 두 개를 신나게 사온 수진이는 하나만 먹고 하나는 아빠를 드리겠다고 끝까지 남겨 놓더라.

“애야, 그냥 네가 먹어라. 어차피 아빠가 오실 시간이면 이거 다 녹아.”

만류하는 엄마의 말에도 수진이는 진지하게 말했단다.

“아니예요, 엄마. 아빠한테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 이걸 드시면 아빠가 기뻐하실 걸요?”

아내로부터 수진이가 했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아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 진하게 전해졌다. 주면서 행복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아빠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하면서 수진이가 기꺼이 짜짜바를 남겨두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수진이는 아빠를 위해 두 개 먹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 먹는 희생을 감수했다. 아직 학교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로서는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수진이의 사랑을 생각하니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고 있던 아이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말했다.

“나는 네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단다. 모든 걸 다 주고 싶구나.”

다 녹다 못해 미지근해진 짜짜바에 담긴 수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다. 먹지 않아도 먹은 것이나 다름없고, 받은 것의 몇 배라도 다시 사주고 싶었다. 아니,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주는 딸이 나는 진정 사랑스러웠다.

< 유재필, 부침개 전도이야기 중에서 >

포장 이사 전문

포장이사

포장에서 정리까지 깔끔한 이사 서비스

일반이사

포장은 고객이 직접 하는 실속형 서비스

고급포장이사

청소 서비스까지 포함된 완벽 서비스



전화: 011 234 9900

팩스: 011 234 9905

Cell: 072 359 5593 (김중진)

‘빈말’ 은 비어있다?

경인 교대 박인기 교수

1

한 방송사가 최근 며느리 1000명에게 시어머니에게 하는 흔한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가 1위로 꼽혔다고 한다. 설문에서는 며느리의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것을 굳이 거짓말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다. 거짓말과는 좀 다른, ‘빈말’이라고 하고 싶다. 말에 별 악의가 없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빈말로 하는 인사를 듣는 시어머니들은 어떠한가? “너,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말아라. 내가 네 속아지를 모를 줄 알고!” 이런 시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런 이야말로 죽다 깨어나도 어른 노릇을 할 수 없다. 시어머니 노릇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빈말의 보살핌에는 역시 빈말의 응대가 자연스럽고 평화롭다. “네가 해 주는 밥 먹고 있으니 날짜가는 줄 모르겠다. 너무 편하고 좋구나.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지만, 비라도 오면 고추 모종도 옮겨야 하고…. 내려갔다가 다음에 또 오마.” 물론 이 또한 빈말이다.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고, 고추 모종은 꼭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이런 빈말 응대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빈말이 굳이 본 마음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미더움과 배려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된다. 위와 같은 고부 간의 빈말 인사는 두 사람 사이에 탄탄한 심리적 안정의 틀을 만들어 낸다. 빈말 인사조차도 오갈 수 없는 고부 사이에는 갈등이 훨씬 고약한 구조로 드러난다. 빈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미적(美的)인 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제라고나 할까? 이것이 빈말의 매력이다.

2

올 해로 10년 쯤, 나는 아침 일찍 올림픽 공원에 걷기 운동을 나간다. 나무들이 잘 둘러선 자리 좋은 곳마다 새벽 잠 없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흘러간 유행가를 단체로 부르기도 한다. 더러 컷전으로 들려오는 할머니들 대화는 대개 며느리에 대한 못마땅함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시어머니 용심은 하늘이 낸다고 한 옛말도 있거니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그런대로 이해도 간다. 지금의 며느리들도 나중에는 피해갈 수 없는 시어머니의

자리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중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시어머니들의 불만은 바로 이런 말이다. “빈말이라도 제 입으로 ‘어머니 한번 다녀가세요’ 그 소리 한번 하는 걸 못 봤어.”

“손자들 노상 맡겨 놓고서는 빈말이면 어때. ‘어머니 힘드시죠’ 그 말 한 마디를 못해요. 내가 인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정 없이 해.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어휴 속상해.”

그렇다. 빈말이라도 좋다지 않는가. 그 빈말 한 마디만 해주어도 이렇게까지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연히 할머니들의 푸념을 들은 것이지만 젊은 며느리 세대인들 시어머니 쪽에서 베풀어주는 빈말에 대한 갈증이 왜 없겠는가. 그 아무 것도 아닌 빈말을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빈말을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말이고, 허언(虛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야말로 꼭 막힌 생각인지 모른다. 오히려 빈말의 효용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자기중심의 사고 벽에 갇혀서 답답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3

실제로 있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어느 시골에 면장님이 새로 왔는데, 그날 저녁 부면장과 함께 인근 식당에 갔다. 두 양반이 다 등심구이 고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고기 먹는 취향은 조금 달라서, 면장은 바짝 다 구운 고기, 이른바 웰던(well-done)을 좋아하고, 부면장은 중간 정도 구운 고기(흔히 양식을 주문할 때, medium이라고 하는)를 좋아했다. 불 판에 고기를 올려놓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익을 만하면 부면장이 냉큼 냉큼 먼저 다 집어 먹는 것이었다. 미디엄 상태의 고기를 좋아하는 부면장으로서는 굳이 다 익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면장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나 좀체 기회가 오지 않았다. 고기가 제대로 익기도 전에 부면장이 다 먹어 치우는 것 아닌가. 마침내 면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예끼! 여보게 혼자서 다 먹게나. 나 원 참!”

해프닝에 가까운 장면이지만, 어쩌다 이렇게 민망한 사태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왕성한 식욕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부면장의 눈치 없음을 탓해야 할까. 이쯤에서 생각나는 텔레비전 라면 광고(CF) 하나가 떠오른다. 워낙 국민 전체가 인상 깊게 받아 들였던 광고인지

라, 세월이 한참 지났어도 범국민적 광고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 끓여 놓은 라면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코미디언 두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얼굴 가득 먹고 싶은 표정이 번지면서도, 서로 라면 사발을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말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외치는 것이다. 진짜 마음은 내가 먹고 싶은데, 공연히 마음에 없는 말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빈말 인사의 가장 전형적인 장면이다. 분명히 빈말에도 힘이 있다. 앞 이야기에서 면장과 부면장은 빈말의 효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빈말로라도 “면장님 먼저 드시지요”, “부면장 먼저 드시오” 이렇게 몇 번만 권유를 했더라면, 그렇게 낭패스러운 장면으로 한 걸음에 치달았을까. 빈말 권유를 받는 동안에, 면장은 “나는 익은 고기를 좋아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맛 취향을 말했을 것이다. 부면장 또한 빈말 권유에 얹혀서 이른바 미디어용으로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어디쯤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렇게 민망하지는 않은 소통의 가닥을 잡아 나갔을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민망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빈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체면 돌아보지 않고 몸으로 또는 말로 다투는 장면이다. 그 다툼의 주인공이 젊은이와 늙은이일 경우에는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민망하다 못해 어떤 수치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젊은이가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배웠느냐?”고 거품 품고 일장 훈시를 하는 늙은 양반의 모습도 각박해 보이기만 마찬가지이고, “여기가 당신 안방이나, 누구를 훈계하느냐.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시지 지하철 왜 타느냐”고 바락바락 대어 드는 젊은이의 말대꾸를 듣노라면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황폐감을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두가 빈말을 우리 생활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내가 앉아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빈말 한번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시지요”, “아가씨 먼저 앉으세요”, “아저씨 앉으세요”, “젊은이 나는 곧 내리니 앉으시게.” 이렇게 빈말이라도 해 보는 것이다. 상대 또한 빈말로 한 번쯤 사양을 해 주면 속된 말로 참 그림이 좋다. 물론 상대가 냉큼 앉아버렸을 때의 허탈한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야속함이란 내가 한 말이 빈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런 빈말 덕에 앞의 장면처럼 마치 막사는 사람들처럼 망가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소위 자

존심의 영역이다.

4

빈 말은 그냥 텅 비어 있는 말이 아니다. 딱히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다지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를 생각해서 굳이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걸 그냥 정직과 부정직의 단순 이분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말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나면, 사람 살면서 말 붙이는 일에 숨어 있는 소통의 지혜를 허망하게 놓쳐 버린다는 생각이 든다. 빈말은 심리학 하나를 거느리고 있다. 마음에 넘치는 진정됨이 꼭 차 있어서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없어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와 나의 관계가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깔고서 하는 말이 빈말이다. 빈말의 반대말을 굳이 만들라고 한다면 ‘찬말’이 되겠으나, 이런 말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빈말’이라는 말은 쓰인다. 어떤 말이 실제로 쓰인다는 것은 그 말의 기능이나 값이 그 나름대로 사람 살이에서 인정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빈말의 묘미는 생각해 볼수록 오묘하다. 사람 사는 세상이 오묘하다는 것이리라. ‘빈말의 사회학’이 가능해진다. 빈말의 효용을 옛사람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으로 이미 지혜롭게 터득하였다. 문제아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적 노력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치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걸 일상에서 실천해 보라. 만만치 아니한 인내심과 인간적 수양이 필요함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여기쯤에 도달하면 ‘빈말’은 산처럼 큰 화두로 다가온다. ‘비어 있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인식론의 고매한 영역이다. 모든 형상들은 그 안의 비어 있는 것들로 인하여 비로소 그 보이는 실체를 드러낸다. 내부의 비어 있는 허공이 없이는 어떤 청자 백자도 그 아름다운 형상의 미를 연출해 낼 수 없다. 말의 작용 또한 그러하다. 빈말 안에 가득 차 있는 지혜들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감나무에 감이 안 달리면 감나무에 개나 소를 매어 놓았단다. 감이 안 달리면 거름을 줄 일이지 개나 소를 매어 놓다니? 개나 소를 나무에 매어 놓으면 묶인 짐승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 껍질이 까지게 된다. 바로 그렇게 껍질이 까지라고 일부러 짐승을 매어 놓는다는 것이다. 껍질이 까지는 나무는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것이다.

<한희철 목사>

믿음, 소망, 사랑

열다섯 살에 나는 체서 학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은 코네티컷 주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문제 아동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었다. 내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 있었다. 어머니는 정신 장애가 있는 행동으로 집안을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나는 계속해서 엄마를 돌봐야만 했다. 그 결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전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아버지와 학교 교장은 운동을 많이 시키고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기숙사 학교로 나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로부터 적절히 나를 떼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서, 또한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체서 학원에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지막으로 연설한 사람은 학생 주임 프레드 올 리어리 선생님이셨다. 그는 체구가 굉장히 큰, 왕년의 예일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다. 그는 턱이 크고 목이 거대했다. 마치 예일 대학의 마스코트인 불독처럼 생겼다. 그가 거대한 체구를 이끌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자 모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내 옆에 앉은 상급생 하나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꼬마야, 절대로 저 사람과 마주치지 마라. 거리를 건너든지 담을 넘든지 해서라도 저 사람과 마주치는 걸 피해라. 어쨌든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올 리어리 선생님은 그날 저녁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요점만을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학교를 이탈하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학교 밖의 어떤 여학생과도 접촉하지 마라. 이 규칙을 깨는 사람은 지옥을 맛볼 것이고, 덧붙여 내가 엉덩이를 차 주겠다!"

이제 말이 끝났는가 했더니 그는 더 큰소리로 말했다.

"만일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날 찾아와라. 내 방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

내가 학창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더욱 심해지셨다. 어머니는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기숙사로 전화를 걸었다. 허 꼬부라진 소리로 어머니는 나더러 학교를 뛰쳐나와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엄마는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며, 나와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자고 말했다. 난 어

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엄마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엄마가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나는 너무나도 심한 혼란에 빠졌다.

아직 신입생일 때, 하루는 영어 수업을 받으며 나는 전날 밤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영어 선생님께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다.

선생님이 물었다.

"왜 나가겠다는 거냐?"

"올 리어리 선생님께 갔다 오려구요."

내 대답에 반 전체가 얼어붙었다. 다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피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니? 내가 도와 줄 수 있을까?"

나는 말했다.

"아네요. 전 지금 당장 올 리어리 선생님께 가야만 해요."

교실 문을 나서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들은 이 말뿐이었다.

'내 방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올 리어리 선생님의 사무실은 본관 건물의 넓은 로비 옆에 있었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네모난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누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면 올 리어리 선생님은 그 문제 학생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꽁 닫고 그 유리창 가리개를 내렸다. 종종 그의 성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어젯밤에 네가 소방서 뒤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다른 녀석들하고 또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하고 어울려서 말이야."

언제나 그의 사무실 밖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그곳에 앉아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줄 맨 끝에 가서 앉자 다른 학생들이 내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난 아무 잘못도 저지른 게 없어."

"너 미쳤니?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학생들은 그렇게 속삭이듯 소리쳤다. 하지만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다른 곳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다. 올 리어리 선생님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나는 입구에 서서 학생 주임의 그 거대한 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리석게도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공포스런 남자 앞에까지 제 발로 걸어왔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가 으르렁거리듯이 물었다.

"넌 뭇 땀에 여기 왔지?"

내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께선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요."

"그럼 냉큼 들어와 앉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지?"

올 리어리 선생님은 초록색의 커다란 팔걸이 의자를 가리키고는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렸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눈물이 얼굴에서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의 어머니 알코올 중독자이세요. 술에 취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고 두려워요. 제발 제가 미쳤다거나 바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세요."

나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에 파묻혀 있느라고 나는 이 덩치 큰 전직 운동선수가 조용히 일어나 책상을 빙 둘러와서는 초록색 의자에 앉아 흐느끼는 작은 사춘기 소년 옆에 선 것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어둡고 추운 장소에서 길을 잃은 가련한 신의 아들이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일어났다. 신이 사람들을 통해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 중의 하나가 일어난 것이다. 올 리어리 선생님의 커다란 손이 부드럽게 내 어깨에 얹혔다. 그리고 그의 엄지 손가락이 내 목에 닿았다.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나는 이 공포의 거인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기분이 어떤지 나도 이해한다. 나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이다. 너와 네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마.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오늘 당장 너의 엄마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어 가리라는 걸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세의 손길을 느꼈다. 믿음, 희망, 사랑이 처음으로 내 앞에 실체가 되어 다가왔다. 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학교에서 가장 공포스런 사람이 나의 비밀스런 친구가 된 것이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올 리어리 선생님을 만났다. 점심시간에 내가 그분의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면 나는 슬쩍 그분을 쳐다보며 다정하게 윙크를 던지곤 했다. 내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하늘을 날 듯했다. 모든 학생의 공포의 대상인 학생 주임이 내게 그토록 부드럽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준 것이다. 그의 전격적인 조치와 도움에 힘입어 엄마는 차츰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가 내 손을 잡아 주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 순간도 예기치 못하는 막막한 삶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바람처럼 순간적인 사고에도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으니 아침에 눈 뜨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 걱정 말라 위로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다가 영원으로 인도하실 아버지께 어서 나아오세요.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의원

“젊은이여, 조국의 테두리를 벗어나라”

“유대인들은 미국의 각급 선출직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미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인 신호범(미국명; 폴 신)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정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일 때 그 대학의 총장을 면담하려면 편지를 써서 요청하고 전화를 걸어 간청을 해도 1~2개월씩 기다려 겨우 5~10분 정도 면담할 수 있었죠. 그러나 2001년도 내가 상원 부의장이 되고 나니 대학총장과는 입장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신호범이라는 자연인의 파워가 아닌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 대학의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힘입니다.”

“만일 LA 흑인 폭동 때 한국출신 정치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말을 안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한인(韓人)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 의원은 상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99년부터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을 만들어 예비정치인을 키우고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양아 출신과 2세 한국인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정치에 뜻을 둔 대학생들을 선발해 지금까지 10여명이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중 3명은 주 의원과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 힘이 220만 한국 국민의 권익신장과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조국과 미국의 우호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죽기 전까지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한국계 정치인이 1명씩은 탄생될 수 있도록 남은 생을 다 바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계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古稀)를 넘어서신 나이에도 그에게는 아직 큰 꿈이 있다.

별을 세다 별이 되어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난 그는 네 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다. 아버지도 일을 찾아간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 불명 됐다. 한 순간에 고아 아닌 고아가 돼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던 신호범은 돈을 벌겠다고 무작정 가출, 서울로 올라갔지만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 일대에서 거리생활로 연명해야 했다.

“아홉 살이 됐지만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추운 겨울날 친구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부러워 무작정 따라나섰죠. 교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흑판을 넘겨다보며 공책에 필기



를 하다 지나가던 한국인 순사에게 들켰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 들킨 듯 마구 도망치는 그를 순사는 집요하게 따라왔다. 마침내 그를 붙잡은 순사는 귀싸대기부터 한 대 갈긴 다음 “월 훔쳤냐?”고 다그쳤다. 그가 울면서 공책을 보여주자 그제야 전후 사정을 깨달은 순사는 그를 식당에 데려가 국수를 사주고는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다.

〈별을 세다 별이 되어〉

배가 고파서 별을 세었고
엄마가 보고 싶어 별을 세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별을 세었고
외로워서 별을 세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별을 세었고
내가 너무 작아 별을 세었습니다
별을 세다 보면
꿈을 꾸듯 희망이 생기고
내 자신을 망각한 채
별 속에 서서 별만 셉니다

신호범

보이지 않는 손길

당시 서울역 근처에는 이백 여명의 거지들이 있었다. 지나가는 미군 차량만 보면 '헬로 초콜렛 기부 미'와 함께 때묻은 꼬질꼬질한 손을 한없이 내밀었다. 달리는 차량을 향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쫓고 또 쫓았다. 그런 어느 날 달리는 차량 위에서 한 미군 병사가 손을 내밀더니 그의 손을 힘껏 잡고 차량위로 잡아당겼다. 이백 여명의 거지들 중에 그가 선택되는 순간이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는 택함을 받았고 거지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직 그는 누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는지, 왜 그의 손을 잡았는지 모른다.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일을 하게 됐다. 장교 7명의 군화를 닦고, 방 청소를 하는 사환 노릇을 했다. 『구드 모닝 싸(Good morning, sir)』란 되지도 않는 영어 발음을 씩씩하게 외쳐대며 총알처럼 빠르고 부지런하게 일하던 그에겐 ‘백샷(buckshot; 사슴사냥용 총탄)’이란 별칭이 붙었다. 당시 그가 제일 믿고 따르던 군의관 레이 폴 대위가 1953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18세이던 그를 양아들로 입양, 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8년 신호범 상원의원 취임선서식 장면

I'm possible

미국에 오자마자 열아홉 나이에 양아버지 레이 폴(Ray Paul)씨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찾아 다녔으나 전부 문전박대 당했다. 교육받은 경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엉엉 우는 그가 안쓰러웠던지, 동네 고교 교장인 케니스(Kennith)씨가 교사 1명에게 하루 두 시간씩 영어를 특별 지도하게 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1년 4개월 뒤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74년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을 몽땅 외우기로 마음먹었다. 외운 페이지는 불에 살라 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마셨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자신의 뱃속에는 콘사이스 한 권이 들어있다고 농담을 하곤 한다. 그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불가능(impossible)이라 한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그저 보는 것도 싫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Impossible** 이 **I'm possible**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그의 삶도 이제 가능한 삶으로 바뀌어 진 것이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강통을 들고 구걸하던 소년은 이제 박사가 되어 하와이 大, 메릴랜드 大 등에서 31년간 교수 생활을 하게 된다.

너를 멸시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라

고국에서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고 살았다면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을 받아야 했다. 1950년대 미국은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다.

“하우스보이 시절에 제가 모시던 흑인장교의 막사에 들어갔더니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소령 진급에 떨어진 그는 자기 손을 꼬집으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며 피부색을 원망하는 걸 봤어요” 흑인도 제대로 사람 취급

급을 안 해주는데, 동양인이야 오죽 했으랴.

1958년 군복무 시절 빠저린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만 쫓겨나게 된다. 그때 그는 절망에 빠져 절규한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차별 받고 멸시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런 세상에 정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네가 정치지도자가 되어라.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라.” 신 의원은 인종차별 경험을 한 차원 더 승화시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십자가를 진 것이다.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였듯이 신 의원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정계진출

“아무리 차별을 당해도 나는 내 뜻으로 미국에 건너온 1세대니까 참을 수 있지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정계진출을 결심했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주지사의 무역자문역할을 하던 그는 92년 주 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가 출마한 에드먼드市(시)는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소도시. 시애틀의 침실이라 불리는 베드타운이다. 이 지역은 백인이 유권자의 94%이고,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질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더구나 상대는 현역 4선 의원이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신호범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집에 가라(Go home)”는 노골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도 그는 웃으며 받아넘겼다.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내 집입니다. 미국 군대에 복무했고, 39년 동안 세금을 바쳤습니다. 부인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당신이 만약 선조를 찾아 유럽으로 간다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문이 막힌 상대에게 인종 화합과 교통문제 해결, 경제정책 등 선거 공약을 하나 둘씩 풀어나갔다. 그는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그는 5개월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늦게까지 모두 1만4천 가구의 문을 두드렸다. 보통 후보들의 열배가 넘는 방문 유세를 한 그에게 ‘문 두드리는 정치인’이란 별명이 붙었다. 유세기간 중 신발 네 켤레가 닳아 못쓰게 됐다. 집에 와서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었다. 평생 흘린 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흘린 땀의 최종 결과는 공화당 현역 의원을 9%차로 따돌린 승리로 나타났다. 당선 통보를 받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결심하게 된다.

“교포 1.5세대 대학생 2명이 찾아와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이민 와서 얼굴 색깔 때문에 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젠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나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1993년 워싱턴 주 하원의원에 오른 그는 98년 상원의

원에 당선됐고 이어 재선, 3선에 이어 현재 4선 의원으로 부의장 직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98년 상원의원 선거 당시 7만2000가구의 유권자를 일일이 방문했다. “당시 동양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백인들도 많았지만 광활한 지역을 일일이 돌며 한 표를 부탁하는 정성에 감명을 받은 유권자들이 나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여 년간 한번도 한국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이 많이 나오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낙심을 이겨내고

그러나 그의 정치 생활도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1994년 연방하원 선거에 이어 96년 워싱턴 주 부지사 선거에서 0.4% 차로 연거푸 낙선하자, 주변에선 ‘출세욕에 눈먼 자’, ‘뿌리도 없는 입양아’라는 식의 질시와 모략이 잇따랐다. 그는 시름을 달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홀로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조선아’ 할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는데,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항거하다 무참히 살해됐다고 합니다. 항상 조국을 그리다가 딸의 이름을 ‘조선아’라고 지어줬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의 역경을 어찌 제가 미국에 와서 고생한 것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국을 지키려 항쟁하는 분도 있는데, 선거에 한번 떨어졌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고 결국 미 워싱턴 주 상원 의원이 되었다.

월마 루돌프는 22명의 자식 중 20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월마는 조산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4세 때 폐렴에 성홍열이 겹쳐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9세가 되었을 때 월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기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3세 때는 춤추는 것처럼 이상한 걸음걸이였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에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주에 참가한 그녀는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몇 년간 월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으며,

언제나 꼴찌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일등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참가한 모든 경기마다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다시는 걸을 수 없었던 어린 소녀는 올림픽에 참가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월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하던 것은 금속 보조기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다시 살아난 한국학 강좌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한국어학 강좌가 2001년 담당 팔레 교수의 은퇴 후 후임 교수 선발이 예산 부족으로 유야무야 되면서 강좌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때 신호범 의원은 주 정부가 한국학강좌 전체 예산의 25%를 부담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체 주 예산이 17억 달러나 적자인 데다 소수민족이 주도하는 특정 강좌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된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주 예산안의 최종투표일이 지난달 24일이었는데 전날 저녁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장을 찾아가 ‘내일 예산안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 상원은 25 대 24로 민주당 우세였는데 제가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 전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그날 밤 12시 민주당 상하원 합동 회의로 한국학 지원예산이 최종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그는 한국어 교육법을 통과시켜 한국어를 각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나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동포 7백여만 명이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뿌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 속에서 훌륭하게 적응하며 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이중문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이젠 살았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되 밟아가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저녁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였습니다. 별을 보고 그는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가 내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 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화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에서 좌절하지 않는, 적어도 양 문화의 우수한 것을 흠뻑 빨아들여 열등감을 뛰어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자리가 잡히자 그는 한국에 살던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낳은 이복 동생 5명과, 친아버지까지 모두 미국으로 모셔와 집안의 기둥 노릇을 톡톡히 했다. 3년 반 동안 모시고 살던 친아버지는 199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릴 때 가난만 주고 훌쩍 떠나버린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지만, 이젠 모든 걸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 한다.

“아버지는 제게 한국 피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난도 주셨지만, 그걸 이겨 낼 능력과 노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고맙습니다.” 금발의 미국 여성 다나를 부인으로 맞은 그는 양아버지에게서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대물림 하기 위해 동양계 혼혈 2명을 아들과 딸로 각각 입양해 훌륭히 키워냈다. 유타 대학 교수이던 양아버지가 제자의 사업에 은행 빚을 내 투자했다가 사업 실패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려 하늘이 준 기회”로 받아들였다. 원금은커녕 이자를 무느라 주말도 없이 일하는 양부모를 위해 그는 3천 평 규모의 양로원을 지어 선물했다. 준공식에서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감사하던 양아버지도 이젠 이 세상에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양아버지로 부터 받았던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성실한 신앙인

올해 75세인 그는 나이에 비해 아주 젊어 보인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았고 노력과 용기로 이겨낸 그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이다. 고달픈 삶을 살아냈고 포기 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불합리를 미워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왔으며 조국을 빛낸 삶으로 존경 받아 마땅하다.

그는 지금 미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4선의 중진 정치인이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겸손한 대화 속에서 그가 가진 막강한 힘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는 평생을 통해서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이웃의 상처에 눈물 흘리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그의 성실함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까지 감동시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선생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인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낮익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날마다 무심하게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수십 년 전 그가 졸업한 초등학교였다. 건물은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두컴컴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문득 한쪽 구석에서 붉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마리아 선생님이 아직도 여기에 사신단 말인가?’

초등학교 시절, 수학을 가르치시던 마리아 선생님은 당시 학교 건물에 딸린 사택에 혼자 사셨다.

그는 무심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어떻게 선생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

그는 마리아 선생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학생이었다. 선생님은 그가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자주 말했다. 그는 물리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한 데도 마리아 선생님의 격려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나무가 심어진 길을 따라 교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뵈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설마 여전히 여기 사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직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조심조심계산을 올라가 사택에 이르렀다. 노크를 하려고 보니 문이 열려 있어 고개를 살짝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봤다. 비어 있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거기 누구세요?”

그가 고개를 돌리자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마리아 선생님이란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마리아 선생님은 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엄숙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마리아 선생님, 정말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는….” 선생님은 잠시 아래위로 그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조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페이샤 스바노프…, 페이샤. 어서 들어오게 이리 와서 앉아. 페이샤 탁자 앞으로 와서 앉게. 자네가 오다니!”

그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싶어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얼른 거두어들였다. 어머니뻔 되는 분의 손을 마구 잡을 수 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마리아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페이샤. 우선 자네 이야기를 해봐. 일은 잘되고? 결혼은 했나?”

선생님은 이것저것 질문을 한 아름 쏟아냈다.

“네, 결혼했어요.”

“행복한가?”

“아주 행복해요! 아들 딸 하나씩을 두었지요.”

“그래, 일은 어떤가? 요즘은 무슨 구상을 하고 있지?”

“선생님,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해요. 학교 이야기요.”

“자네 반에 개구쟁이지만 재능이 많은 애들이 있었던 게 기억나. 자네와 친한 친구들이 특히 말썽꾸러기였지.”

“선생님, 제게 수학 점수를 60점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이미 4학년 때였을걸요.”

“기억나네, 자네가 숙제를 안 해와서 그랬지. 자네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지만 가끔 너무 게으름을 피웠어.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혼도 자주 났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미샤라고 기억나니? 그 친구, 기자가 됐어. 전국 각지로 출장을 다니는데 해외로도 간다더구나.”

“그 친구가 왔었나요?”

“아니.”

“아, 네… 다들 바쁘겠쬬. 올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뵈러 왔었나요? 저희 반 친구들을 만난 적 없으세요? 울리아는 만나보셨어요? 그 애는 배우가 됐어요. 선생님이 개한테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영화에서만 봤단다.”

“그 친구들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단 말씀인가요?”

“그래, 안 왔단다.”

“그래도 편지는 자주 받으셨겠쬬?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모두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페이샤.”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샤샤는 자주 온단다. 그 애는 아주 힘들게 살고 있지. 그 아이는 자주 와.”

잠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순간이 이어졌다. 그는 선생님의 눈길을 따라 책꽂이로 시선을 옮겼다.

눈에 익은 책이 보였다. 자신이 쓴 양자물리학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학술서였다.

“선생님,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그 책을 선생님께 보내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 읽어봤지. 너무 어려운 내용이더구나.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끝까지 봤단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페이샤 훌륭한 학자가 돼주어 고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쓴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책에 사인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책장에 글을 쓰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를 바라보던 선생님이 말했다.

“아, 깜빡 했구나.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차도 안 내놓다니…. 내가 요즘 이렇단다. 무슨 차를 마시겠니?”

선생님이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간 사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빠르게 열린 방문을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문틈으로 선생님의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듯했다.

선생님의 방은 사방 벽면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제자들의 사진이었다. 그 밑에는 최근 근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마리아 선생님의 방은 선생님의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내다 주신 차를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체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뒷목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그는 선생님과 대화를 서둘러 마치고 방을 나섰다. 선생님이 학교 밖까지 배웅해주었지만, 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그때. 마리아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페이샤, 솔직하게 말해주렴. 네 책에 내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전….”

선생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서운해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내일 학생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자랑스러운 선배가 학교에 다녀갔다고 해야지. 어서 가렴, 페이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길 바란다. 부디 행복하고….”

선생님과 헤어진 그는 힘없이 거리를 걸어갔다. 한참 걸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마리아 선생님은 아직도 교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그 생각마저 부끄러웠다. 오래 전에도 편지를 쓰겠다고 결심했다가 유야무야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체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체국에 들어가 마리아 선생님께 전보를 보냈다.

마리아 선생님이 받은 전보에는 단 한 줄의 글만이 씌어 있었다.

“선생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골짜기 사이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댐에서 나오는 물로 이 조그마한 도시는 잠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 년 반 후에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받은 후부터 도시는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곳곳의 지저분한 부분에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떠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계획은 자꾸만 미뤄졌고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시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 주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4)

요셉

항일 무장투쟁 2

국내에서 만주로 러시아 영으로 옮겨 갔다.

한일전 1921년 국내에서 87건, 만주에서 73건, 경찰서 습격 71건

1922년 국내에서 89건, 만주에서 59건, 경찰서 습격 161건

1923년 만주에서 12건, 경찰서 습격 12건

1924년 경찰과 교전 200여건

일본군 경신년 대학살

① 일본군 3,000여명 부상

② 만주 봉오동에서 항일 독립군에게 참패한 후

③ 농민 13,000여명을 무차별 학살

항일연군(抗日聯軍)은 조선 중국 연합군으로 조선군이 훨씬 많았다.

러시아 혁명 당시 영국, 프랑스와 일본은 제정 러시아를 도와 참전했고 조선독립군은 레닌이 이끄는 혁명군을 도와 싸워 혁명군이 승리했다. 전쟁 후 영국, 프랑스군은 철군 했지만 왜군은 조선독립군의 해체를 요구하며 철군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 혁명군은 조선독립군에게 해체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총돌 함으로 말미암아 조선독립군 수백 명이 죽고 900여명이 무장 해제 당했다. 나머지는 러시아 적군(赤軍)에 편입 되었다. 이는 러시아 혁명정부의 조선독립군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혁명군과 정부간의 내전 시 조선독립군은 혁명군을 도와 승리에 공헌했는데 하바로스크, 우라지오보스토크 등지에서 왜군 정예부대 7만을 격파 패주 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인하여 러시아 정부는 고려인들에게 거주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혁명군을 도와 싸운 것은 조선독립군뿐이었다.

이승만을 탄핵하다.

1925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핵재판 논고문

1. 근무태만
2. 공금횡령
3. 파당 짓고
4. 항일 무장투쟁 반대
5. 외교 독립론 주장
6. 선 교육론 주장

판결

이승만은 시세에 암매하고 정견이 없으며 무소부위 독재행동과 포용력과 적성결여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음을 판정한다.

1. 대통령 재임 8년간 선서 불 이행
2. 국무위원과 총독 법령을 마음대로 바꾸었으며
3. 황제로 착각 국부(國父)라고 호칭
4. 동포들의 후원금과 공채 권 발매대금을 자의로 사용하고
5. 독립운동 자금 횡령 착복
6. 재정 보고서 제출 불이행
7. 민중 지도자와 총독 한인사회 파쟁을 일삼다.

소작쟁의 (1920 ~ 1945)

이기간의 소작쟁의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며 배일, 반일, 항일 투쟁이었다.

쟁의 내용

1. 소작권 이동 반대(소작권이 이동될 때마다 허다한 비리가 오고 갔다)
2. 소작료의 인하
3. 각종 공과금 지주 부담하라.
4. 사음 제 폐지(사음이란 지주 앞잡이로 소작권을 빌미로 소작인에게는 또 하나의 착취계급으로 기생충과 같은 존재)

지주들은 왜놈들과 하나되어 치안 유지 법으로 경찰을 동원 강압에 나섰다. 소작인의 80%가 절대 빈곤으로 절량농가 이었다. 1944년 총독부 발표에 의하면 징병과 징용으로 농민이 군대에 강제 동원되어 농지 50만 정보가 파종을 하지 못했다 한다.

김제에 간척지를 개발 750만평의 논을 조성하고 97만 평에 달하는 조선 제일의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개간과 저수지 공사에 동원된 농민들에게 3년간 저임금을 주더니 그 후 3년간은 경찰을 앞세워 회유로 속이고 공갈과 협박으로 혹사하고 노임을 주지 않았다.

완공후의 대가는 천 평의 소작권을 주는데 그쳤다. 일본에서 불러들인 농민들에게는 노역도 안 시키고 열두 배인 만 이천 평씩 주었다. 조선 농지의 65%를 3.5%의 지주가 점유했고 농민의 85%가 소작 농가였다.

박용만의 변절

1928년 하와이 교민들을 이끌었던 박용만이 변절하여 일본의 밀정이 되었다가 북경에서 살해됐다.

교민들은 이승만에 대한 배신감으로 박용만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마저 배신의 길로 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조선어 폐지령

왜놈들은 조선문화 말살 정책으로 사립학교 폐지령을 내렸다. 서당도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강화했다. 서당은 1910년 1600개소 이던 것이 1916년엔 18000개소로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서당에서 교육하기 위하여서이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교육령을 개정 조선어 폐지령을 내렸다. 그 대신 일본어와 일본 역사로 대체했다. “조선인에게 일어강습 실시”

1940년 6월 학교근로 보국 대 조직

항일 학생들이 학도병을 피하기 위하여 지리산에 입산하여 소작쟁의 동맹, 휴학 등으로 독립의식을 키웠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근로를 위하여 동원 되었다.

“농촌 진흥정책”

농촌 진흥정책이란 명목 하에 기독교, 천도교 사회주의 조직에서 세운 야학과 농민회 협동조합 부락 진흥회 등을 전부 해체했다.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는 모든 조직을 폐쇄하였다. 1935년부터 학생들의 농촌 계몽 운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은 또한 치안 유지 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신원 보증령을 실시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70만과 친일 반역자 150만이 이런 일들에 동원되어 한국인을 억압했다.

1936년 선만(한국, 만주)척 식은 조선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켜 약속과는 달리 군사 군수 기지화했다

1937년 3월 일차이민 11.928명과 가족포함 6만여 명을 만주로 이주 시켰다. 일본군은 항일 유격대와 격리를 위하여 1935년 현재 100세대 단위의 부락 4천개를 조성.

1936년 말까지 20만 명을 중국 동북지구(만주)로 이송했다. 이와 같은 차단작전은 유격대의 고사작전을 위한 식량통제가 첫째 목적이고 둘째가 일본군의 군량미 조달이다. 농민들에게는 매3일마다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했다. 식량 외에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다. 일체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항의하면 행방없이 살아졌다. 노예나 다름없는 삶이었다.

1940년 7월 전국 교사 및 관 공리들에게 제복 착용지시 전 조선인을 전시 체제화했다.

1941년 임시정부 상해에서 중경으로 이전 광복군을 창설 하다.

1941년 창씨(일본 성으로 바꾸는 것)

총독부는 내선일체(조선과 일본은하나)라며 유혹했다. 목적은 조선땅을 일본 것으로 영구화하고 조선민족은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고 또한 전쟁에 동원 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초등학생 이었는데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성(姓)으로 개명하지 않으면 공직에 등용되지 않으며 또한 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당시 광산업을 하시고 있던 나의 아버지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은 일로인해 다이너마이트 배급에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런데 이 광수(임시정부 독립신문 주필), 최 남선(3.1독립선언문 기안 자) 이들은 솔선해서 조상이 물려준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고 매일 신본(서울신문전신)에 감사 문을 쓰고 왜놈의 성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친일 문인과 지식인

이 광수, 최 남선, 김 활란, 모 윤숙, 주 요한, 윤치호, 노 천명 이들은 제일 먼저 일본이름으로 개명했다. 민족 개조론, 일선동조론, 부인근로대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라는 왜놈의 종자인지 조선종자 인지를 분간 못할 만큼 일본에 아첨한 자들이다.

이들은 조선임전 보국 단이란 친일어용 단체를 만들고 순회 강연에 동원 전시체제에 적극 협력하라고 외쳤다. 저들은 8.15 해방이 된 후 민족 앞에 사죄하거나 자숙함이 없었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이 승만 정권의 비호아래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 단 한 사람 친일행적에 자책 자살로 사죄한 사람이 있었다. 전후 프랑스 정부는 민족과 국가를 배신 독일에 협력한 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단죄했다.

<계속>

경상도 목사님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서울 교회에 초대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예배가 끝날 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했다. "시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설교맨치로 살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영원까지 억수로 함께 하실찌어다"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 (2)

혁명의 씨앗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부패한 부르주아지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은 성공했고 이로써 노동자들(노동당)이 권력을 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10월 혁명은 길고 길었던 러시아 혁명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되어 7월 혁명을 거쳐 2월 혁명으로 완성되었듯이, 러시아 혁명 또한 피의 일요일로 시작되었던 1905년 혁명으로부터 1917년 2월 혁명을 거쳐 10월 혁명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네이트 백과사전)

하지만 이 혁명은 이미 백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1812년 나폴레옹의 침략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육상 강국으로, 또 대륙 최초로 나폴레옹을 이긴 전승국으로 떠올랐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얻은 대단한 평판은 19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815년 이후 차르 알렉산드르 1세(1801~25; 재위)는 이런 평판에 힘입어 국제평화를 위한 웅장한 계획에 주력했다. 그가 외교와 종교에 전념하는 동안 러시아의 내정은 농노제를 포함한 기존 질서의 유지에 힘쓰는 보수주의자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 동안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교육받은 청년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알렉산드르 1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825년 12월에 데카브리스트(12월 당원)이라 알려진 정부를 타도하려는 비밀결사 단원들이 체포되었다. 알렉산드르 1세의 후계자인 니콜라이 1세(1825~55; 재위)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어떤 중대한 정치 변화도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모든 변화를 반대해 온건한 자유주의 사상까지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반계몽주의적 검열을 강력히 추진했다. 거기다 영국·프랑스·투르크와의 크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러시아의 후진성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자 알렉산드르 2세(1855~81; 재위)는 현대화로 추진한 첫 단계가 ‘농노제’의 폐지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도 시행되는데 1864년에 새로운 현 단위와 군(郡) 단위의 민선의회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zemstvo(zemstvo)로 불린 이 의회는 농민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 의해 선출되었다. zemstvo는 세금을 부과하고

자체 자금을 학교·병원·도로의 건설과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에 쓸 수 있었다. 1870년에 유럽의 법을 기초로 하여 사법상의 개혁도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의 주요도시에 민선자치정부의 수립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움직임은 점점 커져갔다. 많은 농노와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농노들이 평생 동안 경작해왔던 토지를 돈을 주고 사도록 한 농노해방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런 혁명적인 집단 가운데는 사회주의 경향의 집단과 테러리즘 및 국가전복음모를 선호하는 집단도 있어서 1881, 많은 개혁을 시행했던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했다.

그의 후계자 알렉산드르 3세(1881~94; 재위)는 전제군주제의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천명했다. 교육이 제한되고 zemstvo의 작업이 방해 받고, 농민 공동체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국민, 특히 빈민층을 오만한 태도로 경멸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큰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억압정책은 한동안 실효를 거두었지만, 그 후 새로운 사회적 긴장이 조성하고 또다시 적극적인 반정부운동을 벌일 새로운 사회집단을 생겨나게 했다. 도시의 전문 직업 층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더욱 급진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장 노동자계급의 성장은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19세기 말엽이 되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농민층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의 사회혁명가들은 인텔리겐치아라 불리는 기존의 정치·사회 제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었다. 아직 그들은 전제군주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덕망 있는 전제군주를 꿈꾸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칼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잉여가치(이윤)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지주계급이었던 귀족들과 달리, 이들 부르주아지들은 공장을 소유한 신흥 자본가들이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자본가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노

동자는 남아돈다는 이유로 임금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책정한다. 그러면서 그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받는 임금 이상의 잉여 노동을 강요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잉여 노동으로 잉여가치(이윤)를 얻는다. 한마디로 자본가, 부르주아지의 富(부)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얻어진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지게 되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에게 저항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나 설비 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이 러시아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19세기말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는 농민공동체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질서 수립에 뜻을 둔 사회혁명당과 러시아의 장래가 공업화와 노동자계급에 있다고 믿는 사회민주노동당의 2대 주류로 나뉘어 있었다. 사회민주노동당은 다시 무산계급에 의한 폭력적 정권탈취와 체제변혁을 위하여 혁명적 전략전술을 추구하는 레닌의 볼셰비키(다수파)와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 과제로 삼아 민주적 투쟁방식을 강조한 후에 멘셰비키(소수파)로 알려진 집단 등으로 나뉘었다.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1895~1917 재위)는 1894년 11월 1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고 1896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을 가졌다.

그는 광대한 제국의 전제군주로서 복잡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적당한 인물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매력은 있었지만 천성이 소심한 인물로서, 신하들과는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려 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개인생활을 더 좋아했다. 가정생활은 평온했고 1894년 11월 26일에 결혼한 아내 알렉산드라에게는 정열적인 사랑을 바쳤다. 알렉산드라는 강인한 성격을 가진 여성으로 니콜라이를 완전히 지배했다.

니콜라이의 주위에는 국민들의 생활상을 왜곡해서 전하는 무책임한 신하들이 많았다. 니콜라이에게는 공

식보고서보다 이들의 말이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내각의 장관들을 불신했고 항상 황제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신(神)이 전제군주로서의 권한을 주었기에 오로지 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따라서 자신의 절대권을 잘 보존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성적인 우유부단한 그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니콜라이는 쟈스트보의 연설에서 정부 업무를 나누어 가지려는 의원들의 희망을 '분별없는 꿈'이라고 무시했고 결국 점점 확산되는 국민들의 대규모 소요사태와 그에 따른 경찰의 과격한 진압에 직면해야 했다.

니콜라이는 또 아시아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다. 황태자 시절이었던 1891년 인도·중국·일본을 방문했고 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의 명목상 감독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미 일본이 발판을 마련한 조선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유지·강화하려고 했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어 러일전쟁(1904~05)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패전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결국 이에 대한 불만이 1905년의 혁명으로 확산되어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군주제가 일시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니콜라이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의 사촌이자 인기 있는 총사령관인 니콜라이 대공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결국 황제는 1915년 9월 5일 대공을 해임하고 자기가 최고 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황제는 전쟁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장관들은 이 조처가 군의 사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그는 이들의 주장을 억눌렀고 곧 해임시켰다.

니콜라이 2세는 작전결정에까지 부당하게 간섭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사령부로 떠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즉 그가 자리를 비울 때 최고권력은 그의 승인과 격려에 힘입어 황후에게로 넘어갔고 그 결과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능력 있는 장관들과 관리들은 모두 쫓겨나고 종교적 협잡꾼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뽑은 무능한 인물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 시기에 라스푸틴은 황후의 외아들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일종의 최면으로 진정시킴으로써 황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황실이 국민을 배신한다는 의구심이 널리 퍼졌고 로마노프 왕조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확산되어갔다. 보수

파들은 군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니콜라이를 퇴위시키려 했다. 라스푸틴이 암살되었을 때에도 니콜라이는 그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니콜라이는 황실 가족의 일원을 포함한 고위인사들이 간언을 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불길한 경고들을 맹목적으로 무시했고, 결국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러시아 혁명

1905년 러시아-일본 전쟁의 굴욕적인 패배는 그 동안 러시아 제정에 불만을 품었던 여러 계층들을 시위로 끌어들이게 된다. 첫 번째 계층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귀족과 지주들로 서부 유럽식 의회를 갖고 싶어했다. 두 번째 계층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공장 노동자들로 작업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들의 투쟁방식은 파업이었다. 세 번째 계층은 무정부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과 테러리스트들로 요인 암살이나 소요를 통해 러시아 제정을 전복을 꾀했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905년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피의 일요일'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1905년 1월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혁 요구를 직접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알릴 생각으로 황제의 초상화와 성상(聖像)을 앞세우고 황제가 살고 있는 겨울 궁전을 향하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니콜라이 2세는 겨울 궁전에 없었고 황제의 삼촌인 블라디미르 대공은 노동자의 평화시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발포를 명령했고, 그 결과 100명 이상의 시위 참가자가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 학살이 있은 후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뒤따랐고 농민들도 농촌에서 봉기를 했으며 군대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파업과 봉기와 폭동은 러시아에서 점점 주변부로 번져가게 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 핀란드, 발트해 연안지방, 그루지야 등은 러시아 제정을 무너뜨리는 혁명에 가담해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혁명의 열기에 당황한 니콜라이 2세는 마침내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헌법제정과 의회(두마)의 창설을 약속하는 '10월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혁명 세력은 니콜라이 2세의 선언을 놓고 10월 선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투쟁하기를 원하는 급진파와 10월 선언에 만족하고 생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온건파로 나뉘지게 된다. 혁명세력이 분열하자, 러시아 정부는 급진파에 속한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체포하고 폴란드, 발트해 연안지역, 그루지

야에 특별원정 부대를 파견해 독립을 위해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던 그곳 사람들을 잔혹하게 진압한다. 1906년 초,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군대의 통제권을 다시 장



악함으로써, 1905년 혁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된다. 때맞춰 러시아는 연평균 7%의 높은 산업 성장률을 이루면서 위세를 떨쳤고 국민들의 불만도 1907년 즈음부터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황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여전하다고 여긴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국내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병력을 파병하도록 선전했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애국심에 불타서 1차 세계대전의 참전에 많은 지지를 보냈고, 무려 1천 500만 명이나 전선에 나가길 지원 했었다. 하지만, 지휘관들의 무능함으로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자멸적인 대패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전쟁 참전으로 국내 노동력의 부족,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의 사회 불안 고조 등으로 러시아의 제정체제에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파업과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니콜라이 2세 황제는 국정을 황후에 맡기고 총 사령관이 되어 전장으로 떠난다. 이때부터 황후를 등에 업은 라스푸틴으로 인해 국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된다.

2월 혁명

제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러시아 제국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만 갔다. 잇따른 전쟁 패배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상대가 아니라는 무력감과 전쟁을 치르며 파탄 난 경제로 인한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던 1917년 2월말,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여성들의 빵을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소요가 노동자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진압해야 할 수도경비대의 대다수도 시위대를 막는 대신 오히려 시위대

와 함께 한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3월 15일 퇴위를 선언한다. 부르주아지와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정권인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2월 혁명이라 함은 러시아 달력에 근거한 것이며, 일반 달력으로는 3월 혁명이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임시 정부보다 자신이 뽑은 평민 의원들에게 더 큰 신뢰를 보였다. 페트로그라드에 살았던 사람들은 공장이나 군부대 별로 자신들의 대표할 2,500명의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러한 인민 대표 의원의 회의를 소비에트라 불렀다.

10월 혁명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 전쟁 참여를 반대하고 토지 분배와 임금 상승을 약속하는 볼셰비키의 정책이 전쟁에 지친 사병들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에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볼셰비키는 그 해 10월, 정부청사와 전신국 및 기타 전략적 요지를 점거함으로써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쿠데타를 성공시킨다. 그리고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제 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소집되고 이 대회에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사회주의 민주주의 노동당(볼셰비키)

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퇴위와 죽음

임시정부는 니콜라이와 그의 가족들을 차르스코예셀로에 구금했었다. 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려고 계획했으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반대하여 이들은 서(西) 시베리아의 토볼스크로 보내졌다. 이때부터 이들의 운명은 종말로 치닫게 된다. 1918년 4월 니콜라이와 그 가족들은 다시 우랄 산맥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로 옮겨졌다. 그곳에 있는 이파티예프 하우스에서 78일간 갇혀 지내며 포로로서 무례한 대접을 받게 된다.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러시아 '백군'(白軍)이 이곳으로 진격하자 지방당국은 이들이 황제 일가를 구출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18년 7월 16일 늦은 밤, 유대인 출신의 볼셰비키 당원 유로프스키가 황제 가족들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씻고 준비를 하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때 황제 가족들은 사진을 찍는 줄만 알았다. 이윽고 유로프스키는 처형 명령서를 읽어 내렸고, 황제 가족들은 모두 총살되어 폐광이 된 광산 갭도에 던져졌다. 이 사실은 예카테린부르크가 '백군'에게 점령된 후 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계속>

별볼일 없어 보여도 별이 될 수 있는 나

케이 제임즈 (Kay Coles James)라는 흑인 여성은 버지니아주의 보건인력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흑인 여성들과 낙태에 관하여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 속에 있던 한 여자가 일어나서 제임즈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당신 같이 중산층 이상의 인사들은 밑바닥에서 사는 흑인들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젊은 흑인 여자들의 참상을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낙태가 유일한 선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마치자 제임즈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흑인 어머니가 있는데 그는 이미 네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며 돈벌이도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난한 어머니는 다섯 번째의

아이를 가졌다면 당신은 그 흑인 어머니에게 어떤 제언을 주겠습니까?”

“낙태를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임신한 아이를 낳아 해도 그 아이의 일생은 암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일어섰던 여인이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제임즈 장관은 신중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그 가난한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임신했던 다섯 번째의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 다음으로 아이 한 명을 더 낳으셨습니다. 제 인생이 암담하냐고요? 천만에요. 제 인생은 어디다 내놓아도 이만 하면 괜찮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앞날을 속단해 버릴 수도 없고 속단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기적’

1741년 겨울 어느 날 밤,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며 흐느적흐느적 걸어가고 있는 한 늙은이가 있었다. 꾸부정하게 허리 굽은 모습의 그는 이따금 터져 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씩 걸음을 멈추곤 하였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 그는 지금 저녁 산책 중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허름한 차림새에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마치 용광로 속과도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가슴 속은 바로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현재의 심연처럼 깊은 절망감이 한데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였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 꼭대기를 찌르는 명성을 누려온 대 작곡가였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명문 귀족들은 서로 시샘하듯 그를 총애했다. 왕실에서도 그에게 온갖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맹이처럼 그들 모두에게서 내팽개쳐진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경쟁자들은 그의 오페라 공연장에 싸움패를 사 보내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극장에서는 그의 곡을 연주하려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날 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다.

4년 전엔 뇌출혈을 일으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었다. 걷기는커녕 영감이 떠오를 때도 손을 움직여 음표 하나 그릴 수 없었다. 의사들은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만큼 병세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헨델은 독일의 악스 라 샤펠이라는 온천장에 가서 목욕을 했다. 한 번에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은 온천 물 속에 있지 말라고 의사들은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에 대한 무서운 욕망은 의사들의 그 말을 무시하게 했다. 한 번에 9시간 이상씩을 물속에 들어가 있곤 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세가 갑자기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기력한 근육에 생기가 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되었다.

재생(再生)의 환희 - 그는 끓어오르는 창작열에 도취되어 연달아 네 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갈채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마치 장마통의 햇볕처럼 잠시 반짝이다 구름 속에 가리어진 꼴이 되고 말았다.

열렬한 후원자 캐롤라인 여왕이 작고한 뒤로부터 수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겨울의 혹한이 휘몰아쳐 왔다. 얼음장같은 극장에 손님이 들리가 없었다. 공연은 속속 취소되었다. 날이 갈수록 채무가 쌓여갔다. 창의력도 의욕도 감퇴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지쳤다. 이제 욕심 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였다. 정신적인 타격은 노쇠를 촉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해야 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듯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저녁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서곤 했다. 방안에 가만히 누워있다는 것이 마치 스스로 죽음을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헨델은 계속 인적 없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저만치 암흑 속에 교회의 첨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었다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내버리게 하셨나이까, 어찌 하여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주시지 않나이까?”

그는 뱃속 저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밤이 깊어서야 한없는 슬픔 가운데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금 이상스레 생각하면서 그 소포를 풀었다. 내용물은 한 묶음의 기사, 성담곡(聖譚曲; Oratorio)의 가사였다. ‘시인 찰스 제넌스로부터’라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헨델은 그 가사 문치를 훑어보면서 투덜거렸다. “방자스런 녀석, 이류시인인 주제에...” 모멸감이 앞섰다. 헨델은 마치 그 시인이 곁에 있더라도 한뼉 혼잣말로 불평을 터뜨리면서, 동봉한 편지를 대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곧 가사에 붙여 작곡을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덧붙여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써어 있었다. 헨델은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그래 뻔뻔스럽게도 제까짓 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헨델은 사실 그다지 신심(信心)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다. 여유가 별려 없을 때에도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성격이 워낙 격렬하고 오만하여 사방에다 적을 만들기 일쑤였던 것이다.

“제넌스란 녀석은 그래 나에게 오페라 대본도 아닌 겨우 이 성가 쪼가리를 보내 주었던 말인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의 가사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헨델은 문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상하게 가슴을 찢러오는 대목이 얼핏 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 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구절에 갑자기 친근감을 느끼면서 헨델은 원고를 계속하여 읽어 내려갔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

그로부터 헨델은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에 마치 영혼이 있어 구구절절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으로 그 원고를 다시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말 한 마디 글자 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다.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순간 헨델은 온몸을 뒹고 지나가는 전율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옛날의 정열이 다시 불붙어 오름을 느꼈다. 머리 속으로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잇달아 샘솟아나는 듯했다.

헨델은 황급히 펜을 찾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채보하기 시작했다. 놀랄 만한 속도로 음표가 오선지를 메워 나갔다.

다음날 아침 남자 하인이 조반상을 들여올 때까지도 그는 책상 위에 엮드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아 아침이 된 것도, 또 조반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충성스런 하인의 권고에 따라 빵을 집어 들긴 했으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는 그 빵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연신 손으로

부스러뜨려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 없이 악보를 그리다가는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 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헨델의 하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나를 뵈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 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그 분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더럭 겁이 날 정도였다니깐요.”

무려 24일간이나 그의 그러한 광란적 망아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는 거의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무섭게 일에만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침대 위에 나가떨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메시아’의 악보 –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 가 마구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다.

헨델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속 14시간이나 잤다. 하인이 겁을 집어먹고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헨델은 그 의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마치 굶주린 들짐승처럼 그는 햄 덩어리를 꾸역꾸역 입으로 틀어넣고 맥주를 한없이 들이켰다. 얼마 만에 그는 불려 오른 배를 쓸어 내리면서 물러앉아 파이프에 불을 땡겨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금 도착한 의사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선생이 나와 더불어 유쾌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면 선생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몸뚱이 여기저기를 쿡쿡 찌르고 툭툭 두드려보러 오셨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하니까요.”

런던에서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헨델은 ‘메시아’를 가지고 아일랜드로 갔다. 그는 자기 작품을 연주하는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공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 기관으로 보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블린으로 간 그는 두 합창대를 하나로 합쳐 연습을 시켰다.

초연(初演)의 날이 가까워 옴에 따라 더블린 시민들의 마음은 점차 흥분으로 들떴다. 입장권은 단시일에 매진되었다. 좌석을 더 만들기 위하여 부인들에게 버팀테(당시 여자들이 치마폭을 벌여지게 꾸미는 데 쓰던 것)를 쓰지 말고, 남자는 칼을 차지 말고 입장하도록 요청되었다.

1742년 4월 13일, 공연 몇 시간 전부터 군중이 극장 앞에 장사진을 쳤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더블린의 이 성공적인 공연 소식이 런던에 알려지자 런던 시민들은 자기들도 이 작품을 하루 빨리 듣게 되기를 원했다.

더블린에서의 초연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할렐루야’ 합창이 불리어질 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청중이 그를 따라 모두 기립하여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이 우연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이 합창이 연주될 때마다 청중이 일어나 듣는 관습을 만들었다.

헨델이 살아 있을 동안 이 곡은 해마다 공연되었고 그 수입은 모두 파운들링 병원으로 갔다. 헨델은 앞으로도 이 작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계속 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유언하였다.

그 뒤로도 헨델은 많은 고난에 봉착하였지만 다시는

전과 같은 그러한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는 그에게서 점차 생기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은 최후의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1759년 4월 6일 저녁(그의 나이 74세가 되던 해), 그는 ‘메시아’가 공연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가 시작 될 때 그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며칠 뒤에는 그는 ‘나는 성(聖) 금요일(예수의 수난일)에 죽고 싶다’고 말했다.

4월 13일 ‘메시아’가 초연되었던 바로 그 날, 자신의 소원대로 조지 프레데릭 헨델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하여 그의 정신, 절망 없는 희망의 개선(凱旋)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런던의 엘버트 홀에서 해마다 성 금요일에 공연되는 ‘메시아’는 오늘날 부활절 축하 행사의 한 전통이 되었다.

‘메시아’에서 헨델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하여 온 세상을 비치는 햇불에 불을 붙여 놓았던 것이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노래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동안, 산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동안,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있는 동안 헨델이 남기고 간 인간의 승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 국민학교 졸업식에서의 일이다.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부인이 노력상을 받게 되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내는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야기는 그 부인의 딸이 국민학교를 입학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는 섬은 집이 세 채밖에 안 되는 외딴 곳이었다. 주민이 겨우 20명 남짓한 이 섬은 육지인 여수에 볼 일이 있을 경우 섬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딸이 여덟 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여자 아이가 공부해 뭐하냐’ ‘만약 공부를 해도 20리나 되는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아이의 교육을 반대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남편 몰래 딸을 육지의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고야 말았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이십 리나 되는 험한 물길을 손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온 그녀는 태연하게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왔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서러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질 때 딸의 애타는 모습이 애처로워 눈물을 흘리면서 노를 저었다.

어머니의 정성은 너무도 지극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뱃길이 무려 3만 3천리나 되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졸업식장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눈 속에 비친 자비심

여러 해 전, 미국 북부 버지니아 주에서의 일이다. 어느 몹시 추운 저녁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 무릎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노인의 수영이 고드름처럼 얼어서 반짝였다. 춥고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었다. 살에는 듯한 북풍한설 속에서 노인의 몸은 점점 뻗뻗하게 얼어갔다.

그때 노인은 얼어붙은 길 저편을 질주해 오는 흐릿한 말발굽 소리들을 들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말을 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말을 얻어 타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은 초조해 하며 몇 명의 신사들이 말을 타고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 데도 노인은 도움을 청하려는 아무런 손짓도 시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 노인은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눈사람처럼 서 있는 노인 앞으로 말을 타고 다가왔다. 이 신사가 가까이 오자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이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군요."

말의 고삐를 늦추며 그 사람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노인의 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신사는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노인을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다.

작고 안락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말에 탄 신사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노인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얼른 태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척 궁금하군요. 이토록 추운 겨울날 밤에 당신은 계속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나에게 말을 태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거절했다면 당신은 그곳에 그냥 남겨졌을 것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린 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잘 안다고 믿고 있지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태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그곳에 친절과 자비심이 비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곤경에 처한 나를 도와 주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 신사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이 해주신 얘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말을 몰고 백악관으로 돌아갔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새로운 감옥이 세워졌다. 수 백 년 동안 많은 죄수들을 수용해 온 포트 알칸 감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죄수들은 새 감옥으로 옮겨진 후, 옛 건물의 전기 장치와 가스관을 떼어 내는 작업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교도관의 감독 아래 감옥 벽을 헐어냈다.

벽을 허물던 그들은 육중한 문마다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두께가 5센티미터나 되는 쇠창살이 막고 있던 감옥의 벽이 종이와 흙으로만 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벽을 세게 걸어찼다면 충분히 탈옥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몇 년 동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갈혀 있었기 때문에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밴더빌트 가문의 시작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저명한 가문 중의 하나인 밴더빌트 가문은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지역의 드 빌트(De Bilt)라는 지방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다. 이 가문을 일으킨 코넬리우스 밴더빌트(1794-1877)의 4대조 할아버지 얀 애르트슨(Jan Aertson)가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신천지인 뉴암스테르담으로 이민을 오면서 처음으로 밴드빌트라는 성(Last Name)을 사용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어로 밴 데어(van der)는 영어의 오브 더(of the)이다. 그래서 ‘빌트 지방에서 온(van der Bilt)’이라는 그들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말로 그들의 성을 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막을 열다

뉴욕시의 한 섬인 스테이튼 섬의 포트 리치몬드에 살던 가난한 농부이자 뱃사공의 아홉 아이 중 넷째로 태어난 코넬리우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열한 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나룻배로 스테이튼 섬과 맨하튼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운송해 주는 부친의 사업을 도와야만 했다.

16세 때인 1810년 어머니로부터 100달러를 빌린 코넬은 작은 뚝단배를 사서 사람과 화물 운송 선박사업을 시작했다. 코넬은 아직 어렸지만 이때부터 벌써 장차 해운 왕으로 성공할 자질을 보였다. 저 운임 정책으로 기존 업자들과의 경쟁을 뚫고 사업을 번창시켜 1년 안에 원금 100달러는 물론 이익배당금 1000달러를 모친에게 지불할 수 있었다.

행운도 따랐다. 1812년에는 영국 및 속령 캐나다와의 전쟁 중이던 미국 정부로부터 뉴욕시의 해운사업을 하청 받아 크게 성장하게 된다.

1814년부터 4년간 더 큰 배들을 계속 구입하며 뉴욕과 뉴잉글랜드, 남쪽으로는 남 캐롤라이나 주까지 해운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1818년 소유했던 범선(뚝단배)들을 매각하고 동업자 토마스 기븐스(Thomas Gibbons)와 증기선을 구입했다. 두 동업자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간의 운임을 경쟁자보다 75%나 싸게 받아 해운사업을 독점했다. 당시 뉴욕 정부로부터 독점 해운운송 계약을 받고 가격 통제로 해운전매 사업을 벌여온 풀톤과 리빙스턴은 새로운 경쟁 위협을 느끼고 코넬과 기븐스를 매수하

기 위해 엄청난 봉급과 보너스를 제의했으나 코넬은 자유경쟁을 통한 투쟁을 결심하고 그들의 요구



를 거절했다. 당황한 풀톤과 리빙스턴은 불법으로 선박운임을 내렸다는 이유로 두 경쟁업자를 고소했다. 1824년 미 대법원은 “고객을 위해 가격경쟁은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려 미국 최초의 자유경쟁을 위한 시장경제의 막을 열었다. 자유경쟁을 통해 시장경제를 개방하게 만든 코넬의 공헌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쟁에 앞설 수 있는 역사적인 기점을 만들었다.

1829년까지 동업으로 큰 재산을 축적한 코넬은 동업을 결별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우선 뉴욕시 허드슨 강의 해운업에 착수, 그의 독특한 저가정책으로 경쟁자들을 없애고 뉴욕의 알바니 시, 롱 아일랜드, 컨네티컷 주를 연결시키는 해운 사업 망을 점차 확대 시켜 나갔다.

1840년에는 증기선 100척을 소유한 미 최대의 선박회사로 성장, 미국에서 종업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업체로 군림했다. 코넬은 서비스 또한 개선, 승객에게 편안함은 물론 큰 선박의 호화로움까지 제공했다.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골드러쉬 (California Gold Rush)’로 남미에서 몰려드는 노동자들을 값싸게 운송하기 위해 니카라과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경쟁자들보다 600마일의 여행 거리와 이를 간의 여행기간을 단축시켜 경쟁자들을 제압했다. 이로 인해 그는 연 100만 불의 순이익을 냈다.

1850년에 그는 처음으로 전용 호화선을 타고 유럽여행을 떠났다. 외부에서 고용된 경영인들은 그가 없는 틈을 타 그의 사업을 사취하려 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다. 같은 해 북 대서양 해운사업에 눈독을 들인 코넬은 영국정부의 보조를 받는 커나드 해운사와 경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해운왕에서 철도왕으로

밴더빌트는 매사에 치밀했고 그의 사업분석 능력은 탁월했다. 생활은 검소하고, 고객만족도를 중요시했다. 중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경영능력이 있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Commodore(함장)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1860년대에 강이나 호수를 통한 해운사업보다 속도 빠른 철도 운송의 미래를 직감하고 철도 운송에 뛰어 들었다. 그는 철도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철도 회사를 구입하는 사업전략을 채택해 롱아일랜드, 뉴욕, 할렘과 허드슨 강변 철도선을 매입했다. 1867년에는 센트럴 철도 선을 병합했다. 그는 철도사업에 크게 투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저가정책의 사업전략으로 경쟁자들을 흡수하던지 파산시켜 뉴욕 센트럴 철도선 (NYC)을 탄생시켰다. 그는 세계 최대의 그랜드 센트럴역을 건설하고 5년 안에 2,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그랜드 센트럴 역을 건설하는 사업은 1873년 공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는 철도사업에 관심을 둔 장남 윌리엄과 함께 미 중서부와 남부 철도선을 장악해 세계 최대의 철도 회사로 군림했다. 이로 인해 뉴욕 센트럴 철도선은 뉴욕과 펜실바니아, 미쉬간, 캐나다 남부,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조리주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됐다.

남부의 하버드

1868년 밴더빌트의 부인 소피아가 세상을 떠났다. 소피아는 남편보다 한 살 아래로 이중 사춘기간이었다. 소피아는 55년간 동거동락 하며 사업성장에 커다란 힘이였다. 따라서 부인의 죽음은 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1년 후 73세의 밴더빌트는 먼 친척 되는 34세의 프랜

세스 크로포드와 재혼했다. 새 부인은 그의 열 두 자녀들 중 일곱째보다도 나이가 어렸다. 그러나 새 부인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영역을 보여줬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남편을 설득해 1백만 달러 (현재가치 16억 달러)를 그가 알지도 못하는 내쉬빌 대학교(Nashville Central University)에 기증하게 했다. 이것은 남북전쟁 이후 남북 사람들간의 반감과 전후 상처를 줄이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테네시 주 내쉬빌에 있는 이 대학교는 1872년 설립됐으나 자금이 모자라 설립자인 맥타이어는 사촌 동서인 뉴욕의 밴더빌트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지원에 감사, 밴더빌트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이름을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로 바꿨다. 현재 이 대학교는 단과대학 4개와 대학원을 6개 운영하고 1만2천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남부의 하버드란 명성을 갖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써 세계 통산 명문대학 순위 19번째로 평가된다.

코넬리우스는 장남 윌리엄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긴 후 1877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두 번째 아내와 여덟 명의 딸들에게는 5만 달러씩만 분배하고 나머지 9,500만 달러의 재산을 장남에게 넘겼다.

당시 미국 최대의 거부이며 여러 철도 노선을 소유한 최고의 철도왕이었으나 밴더빌트는 내쉬빌 대학교에 100만 달러를 기증한 것과 자기 교회에 5만 달러 기부금을 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자선사업 없이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겼기에 인색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1억 달러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면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했던 공을 빛 바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이주해 온 가난한 집안의 자손인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무슨 무슨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첫 번째 기업가가 되었다.

국적: 미국

출생: 1794년 5월 27일 미국 뉴욕시

사망: 1877년 1월 4일 미국 뉴욕시

직업: 선박 및 철도사업가, 프로모터

재산규모: 1,596억 달러

통산 세계 100대 부호 순위: 3위

산업부문: 선박 및 철도운송

사업전략: 저가정책으로 틈새시장 침투

사업특성: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개방의 선구자

한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서른아홉 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의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한 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를 앓은 후 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멋진 글귀로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1983년 우연히 라디오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 밖 출입을 못하며 살고 있는 저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들고 있던 펜으로 무심코 저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에게 편지를 했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글을 잘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남자를 사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답장도 없는 편지를 1년 가까이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왔고, 저는 여전히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그 먼 곳에서 서울 금호동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애인인 제 사정상 반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먼 곳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기에 손수 정성껏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고 제주도로 돌아간 남편은 그날부터 1주일에 한 통씩 보내던 편지를 거의 매일 일기처럼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는데 종이 학 1,000마리를 접어 걸지도 못하는 저에게 1,000개의 날개를 달아 이 세상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남편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면서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3년에 걸친 청혼 끝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85년 7월17일, 저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날개가 되어주는 당신께★

여보, 지금 시각이 새벽 5시3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얼음 같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

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어느 아내들처럼 건장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질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계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지요.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늘어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 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여보, 나는 가끔 깊은 밤잠에서 깨어 지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평생 걸지 못하는 아내와 힘겹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자고 있는 당신에게 혹 들킬까 봐, 꾸역꾸역 목구멍이 아프도록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비를 좋아하는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 당신을 따라 나섰지요. 하루 종일 빗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게 되지요. 그런데 며칠 전 겨울비가 제법 많이 내리던 날, 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우리 부부 나이 정도의 남자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우산을 자꾸 밀어내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비를 뽕뽕 맞으며 물건 파는 모습이 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아픔과 슬픔은 어떤 글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그때 나는 다시는 비 내리는 날,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겠노라 나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패물 한 가지도 못해줬다며 당신이 오래도록 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지요.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

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까짓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3년 전 당신은 여덟 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지요.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어뜨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늘 소원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야학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어머니 저녁 챙겨주고 집안청소까지 깨끗이 해 놓고 또다시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와 주는 당신. 난 그런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어린 시절 여느 아이들이 다 가는 학교가 너무도 가고 싶어 남몰래 수없이 눈물도 흘렸는데 인제서야 그 꿈을 이루었어요. 바로 당신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었지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취재수첩] “다시 태어나면 제가 당신을 도울 게요” 17년째 자신의 발이 되어준 남편에게 ‘사부곡’(思夫曲)을 보내온 임 영자 씨(39)는 서울 금호동의 조그만 주택에서 남편 김석진씨(45)와 중3인 딸 한 나,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호세나 와 함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안 거실로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싱크대입니다. 소아마비로 항상 앉아있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임씨가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싱크대의 다리를 없애고 바닥에 붙박이로 만든 것입니다.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병든 어머니와 남편,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주부로서의 알뜰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연만으로 알게 된 임씨에게 어떻게 3년에 걸쳐 변함없이 구애를 펼 수 있었는지, 참으로 남편의 천사 같은 마음씨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고 오히려 이를 묻는 기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불편하다고 그게 장애인은 아닙니다. 장애인 역시 따뜻한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처음 편지를 쓰고 또 만났을 때도 아내가 장애인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아내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

습니다. 오히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내가 있어 더 행복합니다.”

현재 임씨는 매주 3일 정립회관에서 운영하는 ‘노들장애인! 야학’에 나가 하루 4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30년이 지난 이제 서야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초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내년 김에 대학까지 진학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임씨와 결혼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주에서 아내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12년째 봉고차를 몰며 행상을 하고 있는 김씨.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뒤늦게 ‘초등학생’이 된 아내가 안쓰러워 늘 아내의 발이 되어준답니다. 정말 이런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 남편을 위해 아내는 늘 사랑을 받고만 있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울먹입니다.

“여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내 소원은 높은 구두 신고 당신 팔짱을 끼고 걸어보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힘겹게 살고는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우리 부부가 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나는 건강한 사람, 당신은 조금 불편한 장애인으로 만나 다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 예요”

<경향일보 기사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노년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늙은이라 부른다. ‘늙다’의 본뜻은 오래 사용하여 낡았다는 말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다소 부정적이다. 미국은 노인을 Senior Citizen(年長市民)으로 일본은 숙인(熟人)으로 잘 익은 사람이라 부른다.

지난 12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77세 여자 81세로 조사 발표되었는데 십여 년 후면 평균수명이 백살에 이를 것이라 한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참 오래 사는구나 할지 모르나 이를 날 수로 환산하며 36,500일에 불과한 짧은 삶이다. 그런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여덟 시간을 ($35,500 / 3 = 12,167$ 일)을 제하고 병든 날과 근심 걱정하는 날과 유년기와 노년기를 또 제하고 나면 행복한 삶의 절정을 이루는 시간은 전 생애의 50%선에도 못 미치는 짧은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람 있게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는 2025년 총인구의 25%선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지만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으로 여행자의 삶이라 했다.(벧전 2:11)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이요 부정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은 즐거움의 삶이고 정점에 이르지 못하리라 믿는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사람의 수명이 줄어감에 따라 빠르면 40대에 늦어도 60대에 노화기가 시작된다고 한다. 노화기가 시작되면

첫째로 신체가 지휘부(뇌)의 명령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둘째는 정신력을 비롯한 지구력이 떨어지며 치아와 안력, 청력 등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떨어진다.

셋째는 일(노동)과 식생활 및 성생활이 둔화된다. 노화가 시작되면 젊은 시절, 그 왕성한 신체 각 부분의 세포 생성이 감소된다고 한다.

세포조직의 감소는 장기조직의 위축과 신체 각 부분을 약화시킨다.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아래와 같은 조건 때문이라 한다.

온도, 방사선, 스트레스, 운동부족, 영양부족 등인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가짐이라 한다. 스타트 라인에서 반듯이 이기리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이미 출발점에서 승부가 난 것이다.

온대지방 사람이 열대지방 사람보다 장수하고 열대인은 조숙, 조로 즉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방사선을 쬔면 평균수명이 짧아진다.(동물실험결과) 운동은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젊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발달하고 심장기능이 좋아지며 폐활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운동량이 적으면 영양과다로 비만증이 발생하기 쉽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육류보다 어패류를 많이 먹는 농어촌에 장수자가 많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육체적 피로와 함께 노화작용을 촉진시킨다. 늙으면 폐의 생리적 노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폐활량의 악화 즉 폐의 확장과 수축이 잘 안되며 만성기관지염과 호흡이 곤란해진다.

흡연과 음주는 치명적일 수 있다.

1월 첫 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옛날보다 흡연 인구가 줄었지만 근년에 들어 매년 술, 담배 소비량이 늘고 있어서 국민건강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남자흡연인구는 43% 여자는 3.9%이며 흡연 이유는 습관성이 39%이고 스트레스가 33%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흡연인구가 꾸준히 줄다가 최근에 흡연인구가 늘고 있어서이다. 국회가 점차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하고 올리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도 한다. 흡연과 알코올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병들고 연간 수십만 명씩 기한 전에 죽어 간다고 한다. 문제는 음주량과 흡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이다. 각종 노인병은 노인들로 하여금 현대 의학으로도 치유가 더디거나 어렵기 때문에 공해요소를 피해야 한다. 즉 예방이 최선이란 것이다.

특히 노인병의 주범은 담배와 술이다. 그러므로 이를 금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은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에 임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윤리의 붕괴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살률에서 질병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 국가가 생계에 무능력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

노인의 역할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가정 및 사회에서 역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 스스로 역할을 찾아 부담하고 사회와 자녀들이 노인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인들을 모신 가족은 노부모의 노화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노부모가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때에 성경대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노부모와 중년 부부 그리고 자녀가 다 함께 협력하고 능력에 따라 계획하고 조절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탓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위로 하며 그것을 거울 삼아 개선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노인들이 자기 일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언젠가는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의존할 때가 온다. 이 대에 노인의 무력감을 수용하고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레 19:32)

노인의 건강생활

1. 내 방이 노년기의 성처럼 확실해야 하고 집안 살림의 열쇠를 넘겨주었다라도 Master key는 쥐고 있어야 한다.
2.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손자들에게 한문과 역사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 가정에는 꼭 계셔야 할 어른이 계셔야 한다.
3. 노인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집이 아닌 믿음 안에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고 지나온 날들을 교훈으로 나의 자손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 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4. 노인은 가사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듯이 참견 보다는 효율적이 참여가 바람직하다.
5. 노인의 건강에 유의하여 종합진찰을 실행하라.
6. 노화에 따르는 건강준칙을 세워서 꾸준히 지켜야 한다. 올바른 식사와 물의 사용, 여가 선용, 약물

복용, 안전 관리법, 멀리걷기 운동 등 계획표를 만들어서 실천한다.

7. 안경 사용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멕시코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주식이 쌀밥이듯이 콩을 주식으로 하는데 있다고 한다. 콩은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이다.
8. 부부 생활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노년기가 되면 성생활이 젊었을 때처럼 왕성할 수 없다. 그러나 성생활을 기피하거나 문을 다고 침실을 따로 쓴다면 안 된다. 노년기에 독거하는 남자나 여자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방은 악취가 없다고 한다.
9. 노부부의 성생활은 레크레이션의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최근 학회에 보고된 것으로 노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짝을 잃은 슬픔으로 급속히 노쇠해진다고 한다.

노인의 인간 관계

1.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노부부간의 사랑은 그 가정의 좋은 전통을 이어주는 것이기에 유의해야 한다.
2. 젊은 시절의 가정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노년엔 남편이 의존적으로 변해가는데 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한을 풀려 한다면 안되고 약점을 보완하며 서로 아껴주고 2안 3각의 사랑이어야 한다.

노인에게도 욕구는 있다.

1. 생리적인 욕구를 비롯 안정에 대한 욕구
2. 애정을 갖고 싶으며 소속감에 대한 욕구
3. 자존심과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는 큰 욕구가 있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서 정년을 연장해야 할 때 5.16 젊은 군부는 오히려 정년을 단축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좋은 일꾼들을 잃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이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계승한 후 부왕 시대의 경륜 있는 노신들을 외면하고 친구들인 소년들의 말을 따르다가 열두 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이탈해 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은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노인의 문제점

노인은 대부분 병약하고 가난하다. 역할이 없다. 외롭고 때로는 슬프다. 술과 담배에 찌든 노인일수록 당뇨병과 고혈압, 중풍, 알 치매 등 질병의 위험 앞에 놓인다고 한다. 또 노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이다. 젊을 때에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노인의 몸은 칼슘 성분이 적어서 골절이 쉬우며 치유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치명적 일수도 있다. 노인이 병들었을 때 노환이라 하여 본인과 가족이 다 함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하며 병들었을 때 빨리 치유함으

로써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어야 한다. 간단한 치료로 완쾌될 수 있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치명에 이를 수도 있고 건강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 보려고 어린 시절부터 최소 12년 이상을 철저히 준비하듯이 다가올 노년을 위하여 그리고 생애 중 가장 길어질지 모를 노년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가 소망했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계속>



특별한 날에 당신을 위한 옷과 액세서리

- ◆ Metric Dance
- ◆ Spring Ball
- ◆ Valentines Ball



079 432 9919

일상의 날에 생활을 위한 멋과 품위

- ◆ 홈 드레스
- ◆ 목걸이, 귀걸이, 반지
- ◆ 핸드백
- ◆ 고급 오리털 이불

※ 버리기에는 아깝고, 입기에는 망설여지는 옷을 나눕니다.

무료 광고 문의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소식을 무료로 실어드립니다.



전화: 071-194-2820

메일: latenews@daum.net